Daishin 증권

2024년 09월 12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Issue Comment] 해리스의 판정승, 앞으로 대선까지 D-55

- 첫 TV토론에 대한 평가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워...
-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난전 가능성. 후보별 산업 / 업종별 이해득실 뚜렷
- 단기 트레이딩 기회(해리스 우세),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Quant

주간 컨센서스 점검: 반도체와 함께 하향된 KOSPI

- KOSPI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소폭 상향되었지만, 실질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
- 반도체 섹터의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KOSPI 전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전환
- IT가전, 비철, 보험은 상향됐으며 호텔/레저, 증권, 운송, 기계, 반도체 등은 하향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AI & 리쇼어링, 전력의 시대

-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 급증 예상.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부상할 기업들에 주목 필요
- 유틸리티 → 태양광 → 원자력 순서로 전력 수요 증가 수혜를 받을 전망
- 미 대선이 전력 공급의 판도를 결정. 해리스 당선시 IRA 유지되면서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수혜 예상

서영재. youngjae.seo@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Daishin Strategy

해리스 판정승, 트레이딩 기회. 앞으로 대선까지 D-55

- 첫 TV토론에 대한 평가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워...
-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난전 가능성. 후보별 산업 / 업종별 이해득실 뚜렷
- 단기 트레이딩 기회(해리스 우세),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의문 부호를 지워낸 해리스 부통령, 견조한 지지율 유지해 나갈 전망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오전 10시에 미국 대선 TV토론이 있었다.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불리할 수 있었던 이민자 문제와 에너지 문제 등의 주제에서 능숙하게 대처해냈다.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거나, 토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론을 피한다는 의혹을 지워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본다. 토론 후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시청자가 해리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정책 차별점과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토론 직후 여론은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으나, 대선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TV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졸전을 보이며 무너진 것이 아니고, 주별 선거인단 제도 특성상 전체 미국의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Swing States의 표심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정책이 상대 표심을 의식하여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토론에서 대두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서의 모호한 태도, 지정학적 문제, 인플레이션과 이민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이슈들을 능숙하게 회피하거나 본인은 바이든이 아니라는 스탠스로 방어한 바 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속에서 본인의 차별성을 어필하거나 모호함을 지켜내는 것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지율 등락에 따른 산업 / 업종별 이해득실 가능

단기 트레이딩 기회, 추세 변화에는 제한적일 것

트럼프 우세 시 은행, 인프라, 방산, 카지노, 부동산 등 업종 수혜 가능할 것이다. 해리스 우세 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국 직접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의 연속성 기대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 대선 변수와 지지율 등락에 따른 이해 득실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 수급적 변화는 업종별 엇갈린 등락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세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국내외 정치적 이벤트/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세를 결정한 적은 없다. 정책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변수 자체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선 변수로 인해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산업/업종이 있다면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Quant

주간 컨센서스 점검: 반도체와 함께 하향된 KOSPI

Quant 조재운
Jaeun.jo@daishin.com

- KOSPI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이 소폭 상향되었지만, 실질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
- 반도체 섹터의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KOSPI 전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전환
- IT가전, 비철, 보험은 상향됐으며 호텔/레저, 증권, 운송, 기계, 반도체 등은 하향

지난 1 주일간 KOSPI 12 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0.2% 상향. 이는 기술적 상향이었으며 실질적으로 2024 년, 2025 년 각각 –0.3%, –0.2% 하향. 전반적으로 전망치 변동의 변동성이 낮아진 수준. 이는 실적 모멘텀이 둔화될 때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현재 KOSPI 전체 실적 모멘텀은 둔화된 상태

섹터별로 살펴보면 IT 가전, 비철/목재, 보험은 상향됐으며 호텔/레저, 증권, 운송, 기계, 반도체 등은 하향. 8 월부터 둔화된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둔화로 방향을 틀면서 KOSPI 도 실적 전망치 하향으로 전환

반도체 실적 모멘텀의 하향 전환으로 KOSPI도 하향 전환

반도체 섹터는 0.0%로 보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2024 년, 2025 년 각각 –1.0%, –0.6% 하향. 삼성전자(–0.5%)가 하향을 견인했으며 SK 하이닉스(0.7%)는 상향됐으나 기계적 상향으로 2025 년 컨센서스가 –0.1% 하향. 그 외 디아이(–1.2%), 해성디에스(0.3%)가 하향에 기여

증권(–0.5%) 섹터가 반도체 뒤를 이어 하향을 주도. 메리츠금융지주(–2.0%)와 한국금융지주(–0.4%)가 하향을 견인했는데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 반면 삼성증권은 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손익 증가로 섹터 내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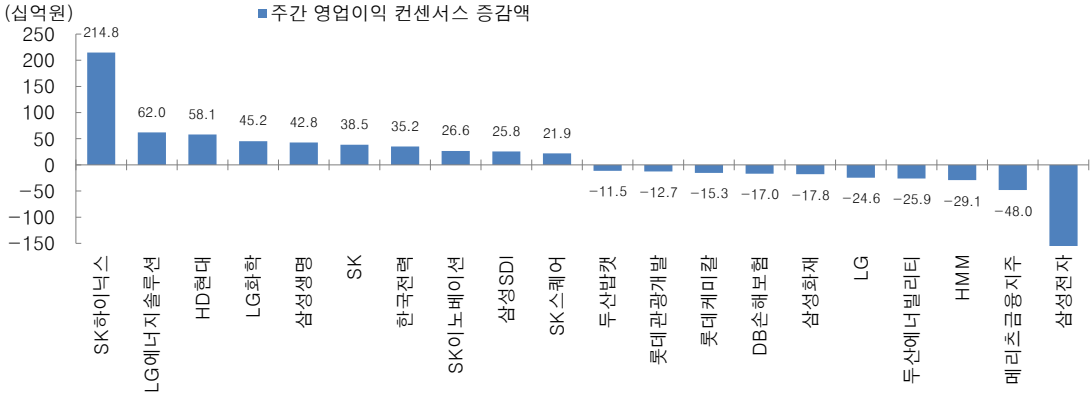
기계(–0.4%) 섹터는 두산에너빌리티(–1.8%), 두산밥캣(–1.1%), HD 현대일렉트릭(–0.2%)이 하향을 견인. 두산밥캣은 업황 부진과 함께 금리인하 대기 수요로 인해 리테일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치 하향. HD 현대일렉트릭(–0.2%)도 비수기 진입과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컨센서스가 하향

상향된 섹터로는 IT가전, 은행, 보험

반면 연초부터 하향세를 지속하던 2 차전지 섹터가 상향되며 IT 가전 섹터 1.0% 상향. LG 에너지솔루션(2.0%)과 삼성 SDI(1.5%)가 상향을 견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유럽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수혜와 Model Y 신차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상향. 삼성 SDI 는 신규 커버리지 개시로 상향

은행(0.2%)은 상향됐는데 섹터 내 차별화된 모습. 우리금융지주(0.4%)는 계열사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향된 반면 카카오뱅크(0.0%)는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이자 이익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하향

KOSPI 주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감액 상하위 종목



자료: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해외주식

서영재 youngjae.seo@daishin.com

Industry Report

AI & 리쇼어링, 전력의 시대

-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미국 전력 수요 급증 예상
- 유틸리티 → 태양광 → 원자력 순서로 전력 수요 증가 수혜를 받을 전망
- 미 대선이 전력 공급 판도 결정. 해리스 당선시 IRA 유지, 재생 에너지기업 수혜 예상

AI & 리쇼어링으로 급증할 미국의 전력 수요

미국 전력 수요는 2020~2040 년 동안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 년 동안 +9%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리쇼어링이 가파른 전력 수요 증가를 이끌 것이다.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시그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PJM 용량 경매 가격이 전년대비 9.3 배 급등했다. 용량 경매가격은 향후 3 년 뒤 피크 전력 수요 대비 공급 가능한 전력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용량 경매 가격 급등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공급 가능 전력은 부족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신규 발전소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망 연결을 승인이 지연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전력망 연결 승인 신청부터 상업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이 2 년에서 5 년으로 증가했는데 이를 다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 트렌드에서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부상할 기업들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전력 수요 증가 수혜는 유틸리티 → 태양광 → 원자력 순서로 나타날 전망

전력 수요의 증가의 수혜는 유틸리티 → 태양광 & ESS → 원자력 순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유틸리티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는 이유는 초기 전력 수요 증가는 기존 발전소를 통해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IRA 수혜를 받는 원자력 기반 콘스텔레이션(CEG), 재생에너지 기반 넥스트에라(NEE)를 주목한다.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향후 3~4 년 동안은 태양광 & ESS 가 부각될 전망이다. 태양광 & ESS 가 여타 발전소보다 확장이 용이하고, 전력망 연결 신청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태양광 패널 기업 퍼스트솔라(FSLR), 트래커 기업 넥스트래커(NXT), ESS 공급 기업 플루언스 에너지(FLNC)가 대표 기업이다.

2027년부터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주목받을 것이다. SMR은 원자로를 모듈화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향후 발전 단가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재생 에너지와 경쟁할 계획이다. 원자력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 뉴스케일 파워(SMR)가 앞서 나가고 있다.

전력 공급의 판도를 결정할 미국 대선

전력 공급의 판도를 가장 크게 바꿀 변수는 대선이다.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유의미한 표차로 앞서고 있으나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당선을 가를 스윙 스테이트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리스 당선 시 IRA 법안이 유지될 것이다. 이는 전력 공급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이다. 특히, 넥스트에라 에너지, 퍼스트 솔라, 넥스트래커 같은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한다. 반면, 트럼프 당선 시 재생 에너지의 매력도는 낮아지고,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부각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다. IRA 법안에 기반한 투자의 75%가 공화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 의원 18 명은 공화당이 향후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더라도 IRA 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하원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대선구도는 9 월 대통령 후보 토론, 10 월 부통령 후보 토론을 거치면서 윤곽이 가려질 전망이다.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